

내가 침례받던 날



메건 에스, 10세, 멕시코 미초아칸
안녕하세요! 제 이름은 메건이고,
멕시코에 살아요. 제 인생에서 무척
특별했던 날, 그러니까 제가 침례를 받았던
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.



저는 여덟 번째 생일에 침례를 받았어요. 침례를
받는 것으로 제 생일을 기념했기 때문에 이날은 무척
중요한 날이었어요.

저는 침례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.
엄마는 제가 준비해야 하는 여러 활동들을 공책에
적어 주셨어요. 그 덕에 침례의 중요성과 하나님
아버지와 맺을 성약에 대해 배울 수 있었어요.



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
침례식을 보러 왔어요. 그분들이 제
침례식에 와 주셔서 무척 행복했어요.
저는 흰 원피스를 입었고, 물은
따뜻했어요.

아빠가 저에게 침례를 주셨고, 몸을 말린
후 옷을 갈아입었어요. 그런 다음, 성신의
은사도 받았어요. 신권을 소유한 형제님이
저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
회원으로 확인해 주셨어요. 저는 평안과
사랑, 기쁨을 많이 느꼈어요.



저는 그 느낌을 항상 기억할 거예요. 침례는 제가
하나님 아버지와 첫 번째 성약을 맺은 것이기에
특별해요. 저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계명에
순종하겠다고 약속했어요.

여러분이 침례를 받는 날이 어떨지 불안한 마음이
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!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
내린 그 선택을 기뻐하실 거예요! ●

